

용수(龍樹)의 바이세시카 운동설 귀류 논파 — 『중송』 제2장 「관거래품」을 중심으로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조교수

nam19888@naver.com

- | | |
|-----------------------------------|---------------------------|
| I. 서론 | III. 「관거래품」의 바이세시카 운동설 귀류 |
| II.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와 관련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 논파 |
| | IV. 결론 |

요약문

본 논문의 목적은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행했던 바이세시카 운동설에 대한 귀류 논파(歸謬論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논자는 그런 목적에 따라 우선 제II장에서 바이세시카의 범주론 가운데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런 후 논자는 제III장에서 「관거래품」에서 언급하는 ①지금 가고 있는 것, ②가는 자, ③가는 행위 가운데 ①과 ②를 바이세시카의 여섯 범주 가운데 실제로 ③을 운동으로 대체하면서, 제II장에서 정리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들을 「관거래품」 제3, 4, 19, 20송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논자는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행했던 바이세시카 운동설에 대한 귀류 논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용수는 「관거래품」 제3, 4, 20송에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 따라 현실의 운동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①하나의 운동 현상에 두 개의 ‘가는 행위’가 있게 되는 불합리, ②‘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가는 행위’가 모두 비

존재가 되는 불합리, ③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들이 양립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하였던 것이다.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귀류 논파했다고 해도, 그가 우리의 현실에서 발견되는 운동의 비존재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용수는 현실의 운동을 연기(緣起)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용수가 운동의 존재를 승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용수는 일체법이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중도 개념 속에는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용수, 나가르주나, 바이세시카, 운동설, 귀류 논파, 중승, 관거래품, 중도

I. 서론

대승불교 경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법(法)이 공(空)임을 주장하는 곳에서 발견되며,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여러 법의 공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반야경』이었다. 『반야경』은 공을 반복적으로 설하면서도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야경』이 설하는 공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논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최초의 인물이 바로 용수(龍樹, Nāgārjuna, 150년경)였다.

용수는 『중승』과 『회쟁론』 등에서 연기(緣起), 무자성(無自性), 공(空), 가명(假名), 중도(中道)를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로부터 용수는 『반야경』이 설하는 공을 연기, 무자성, 가명, 중도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¹⁾ 그런데 그의 중도 개념 속에는 일체법의 진실(眞實), 보살의 진실지(眞實智), 불타의 진실지라는 의미와 함께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²⁾

1) 남수영, 『중관사상의 이해』 (서울: 여래, 2015), pp.127-137 참조.

2) 남수영, 「용수의 중관사상에서 중도 개념 재검토」, 『보조사상』 vol. 46 (서울: 보조사상연구회,

용수는 그 가운데 특히 비유비무의 중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여러 학파들이 실재로서 승인하였던 법이나 범주(範疇) 등을 논파하고, 일체법이 공(=중도)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용수는 일반적으로 『중송』에서 자신의 논파가 어떤 학파에 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운동의 존재를 논파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라고 말해지는³⁾ 『중송』 제2장 「관거래품(觀去來品)」⁴⁾에 대해서도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논파하고

2016), pp.140-147참조.

용수가 설하는 비유비무의 중도 개념은 여러 사물의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사물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해도, 그 사물의 비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용수가 설하는 비유비무의 중도설은 쌍숫따 니카야 12:15(2-5)에서 발견되는 「가전연경」의 가르침을 계승한 것이다.

- 3) 桂紹隆·五島清隆, 『龍樹「根本中頌」を讀む』(東京:春秋社, 2016), p.14.

용수가 운동을 논파했다고 해도 그가 논파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현실의 운동이 아니라, 특정 학파들에 의해서 실재(實在)로 간주되었던 운동이었다. 이지수, 『『중송』 「관거래품」은 운동 否定의 논리인가?』, 『한국불교학』 vol. 26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0), pp.50-51 참조.

- 4) 「관거래품」에는 운동(運動)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발견된다. 그것은 ①gamana, ②gati, ③gamikriyā, ④gamanakriyā, ⑤gatikriyā 등이다. ①gamana는 제3, 4, 5, 6, 7, 10, 13, 14, 16, 17, 18, 19, 20, 24송 등에서 발견되고, ②gati는 제2, 22, 23, 25송 및 제4, 9, 10, 17, 22, 23, 25송에 대한 월칭의 주석에서 발견된다. ③gamikriyā는 제1, 2, 3, 4, 6, 8, 9, 10, 13, 17, 19, 24, 25송에 대한 월칭의 주석에서 발견되고, ④gamanakriyā는 제1송에 대한 월칭의 앞주석에서, 그리고 ⑤gatikriyā는 제11송에 대한 월칭의 주석에서 발견된다.

①gamana는 용수의 「중송」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며, gamana를 제외하고 월칭의 주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③gamikriyā이다. ①gamana는 동사 원형 √gam에 접미사 ‘-ana’가 부착된 중성명사로서 going(감), moving(움직임), manner of going(가는 방법) 등을 의미하며, ②gati는 √gam에 접미사 ‘-ti’가 부착된 여성명사로서 going(감), moving(움직임), gait(걸음걸이), deportment(거동), motion in general(일반적인 운동) 등을 의미한다. ③, ④, ⑤에서 발견되는 kriyā는 doing(행위), performing(실행), performance(수행) 등의 의미이다.

월칭은 「관거래품」에서 gamana를 주로 gamikriyā로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gamana는 ‘가는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월칭은 「관거래품」 제17송에 대한 주석에서 gamana와 gati가 동일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두 용어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두 용어가 유사한 의미라고 해도, 용수가 그것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두 용어를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휘트니의 설명에 의하면 접미사 ‘-ana’는 중요한 의미 유형 및 자주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수많은 파생어들을 형성하며, 접미사 ‘-ti’는 흔히 많은 종류의 여성 행위 명사, 그리고 몇몇 종류의 남성 행위자 명사 및 형용사를 형성한다. 그 예는 rāti(gift, 선물, 기증), ūti(aid, 도움, 원조), rīti(flow, 흐름), gati(motion, 운동, 움직임), dṛṣṭi(sight, 봄) 등에서 발견된다. William Dwight Whitney, *Sanskrit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426, p.432.

이와 같은 휘트니의 설명을 고려하면 gamana와 gati는 거의 동일한 의미이지만, 여성명사 gati는 중성명사 gamana보다 ‘운동’의 의미를 더 강하게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그에 따라 논자는 원문의 번역에서 gamana는 ‘감’으로, gati는 ‘가는 [운동]’으로 번역하면서, 논문의 서술에서 gamana는 ‘가는 행위’로, gati는 ‘가는 운동’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gamikriyā, gamanakriyā, gatikriyā는 모두 ‘가

자 했던 것은 과연 어떤 학파가 설하는 운동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는 「관거래품」 제2송에서 발견되는 실재론자의 반박이 정량부(正量部) 혹은 독자부(犢子部)의 학설과 유사함에 주목하여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가 정량부 및 독자부가 설하는 운동에 대한 논파일 것이라고 추측하였고,⁵⁾ 가츠라 쇼류(桂紹隆)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관거래품」 제2송을 문법학파(文法學派)의 반박으로 간주하였다.⁶⁾ 만약 가츠라의 생각이 옳다면 「관거래품」 제3송 이하의 논파는 문법학파가 설하는 운동에 대한 논파가 된다.

그러나 논자는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가 독자부, 정량부, 문법학파 만이 아니라,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논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①그 논파의 방법을 고려할 때 용수의 논파는 한 학파만이 아니라 여러 학파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⁷⁾ ②『중송』에서 발견되는 설일체유부에 대한 논파는 바이세시카의 범주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해지는 점,⁸⁾ ③「관거래품」 제2송에서 발견되는 실재론자의 반박은 독자부, 정량부, 문법학파 만이 아니라, 바이세시카의 운동설과도 유사하다는 점,⁹⁾ 그리고 ④용수가 「관거래품」에서 논파하고 있는 ‘지금 가고 있는 것’, ‘가는 자’, ‘가는 행위’ 가운데 앞의 둘은 바이세시카의 여섯 범주 가운데 실체에 상응하고, ‘가는 행위’는 운동에 상

는 행위’로 번역하였다.

‘운동’은 ‘가는 행위’와 ‘가는 운동’을 포함한다고 생각되므로, ‘운동’은 ‘가는 행위’ 및 ‘가는 운동’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용수는 「관거래품」에서 ‘가는 행위’, 즉 ‘가는 운동’에 대한 논파를 토대로 해서 여러 학파들이 주장하는 운동의 존재를 논파하였다고 생각된다.

- 5) 月稱造, 山口益譯, 『淨名句論と名づくる中論釋』 1 (東京: 弘文堂書房, 1947), p.146, 각주 ① 참조.
- 6) 桂紹隆·五島清隆, 앞의 책, p.14.
- 7) 桂紹隆에 의하면 용수가 실재론을 논파할 때 사용한 방법은 크게 ①상정 가능한 명제를 모두 열거하고, 그것들을 귀류법(歸謬法)을 사용해서 모두 논파함으로써 일체법공을 논증하는 방법과 ②논점이 되는 사물들이 상호의존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 사물들이 무자성, 공임을 밝히는 방법의 두가지라고 한다. 桂紹隆·五島清隆, 앞의 책, p.145 참조.
- 8) 立川武藏, 「空思想研究のための諸水平(承前)」, 『東洋學術研究』 Vol. 20 No.2 (東京: 東洋哲学研究所, 1981), p.126 참조.
- 9) 「관거래품」 제2송에서 발견되는 실재론자의 반박은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가운데 (8)관념을 가지는 운동의 법칙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응한다는 점¹⁰⁾ 때문이다.

논자의 조사에 의하면 용수가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하고 있는 곳은 「관거래품」 제3, 4, 20송이며, 그가 거기서 사용했던 논파의 방법은 귀류법(歸謬法)이다.¹¹⁾ 용수가 여러 학파들이 주장하는 실재를 논파할 때 귀류법을 자주 사용했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행했던 귀류 논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야마구치와 가츠라도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가 독자부나 정량부, 혹은 문법학파의 운동설에 대한 논파라고 말하면서도, 용수가 행했던 귀류 논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만약 용수가 「관거래품」 제3, 4, 20송에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귀류법으로 논파했다면, 그 귀류 논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논자는 본 논문에서 바이세시카의 범주론 가운데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요약해서 정리한 후, 그 내용을 「관거래품」 제3, 4, 19, 20송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행했던 바이세시카 운동설에 대한 귀류 논파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이세시카의 개조인 카나다(Kaṇāda, 기원전 6-2세기경)가 저술한 『바이세시카수트라(Vaiśeṣika-sūtra)』와 그에 대한 프라샤스타파다(Praśastapāda, 5-6세기경)의 주석서인 『구의법종요(句義法宗要, Padārthadharma-saṅgraha)』, 그리고 중관학파의 개조인 용수(龍樹)가 저술한 『중승(Mūlamadhyamaka-kārikā)』

10)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논파하는 ‘지금 가고 있는 것’, 혹은 ‘가는 자’는 바이세시카의 범주론에서 지, 수, 화, 풍, 아트만, 마나스 등의 단일 실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 실체에 상응하며, ‘가는 행위’는 바이세시카의 범주론에서 다섯 종류의 운동 가운데 하나인 ‘가기(gamana)에 상응한다. 라다크리슈난, 이겨룡 옮김, 『인도철학사』 제3권 (서울: 한길사, 1999), 282쪽, 그리고 WATANABE Masayoshi(2019), “Action (karman) in Vaiśeṣika Philosophy: A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Space (dis)”, 『印度學佛教學研究』 Vol.67 No.3 (148)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2019), pp.1065-1066 참조.

11) 귀류법이란 상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였을 때, 상대가 바라지 않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는 논법, 혹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대 명제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였을 때, 불합리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논법을 말한다. 桂紹隆·五島清隆, 앞의 책, p.168 참조.

과 그에 대한 월칭(月稱, Candrakīrti, 7세기경)의 주석서인 『프라산나파다(Prasannapad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II.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와 관련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인도의 실재론 학파 가운데 하나인 바이세시카는 ①실체(實體, dravya), ②속성(屬性, guṇa), ③운동(運動, karman), ④보편(普遍, sāmānya), ⑤특수(特殊, viśeṣa), ⑥내속(內屬, samavāya)이라는 여섯 범주(padārtha)의 실재를 승인한다.¹²⁾ 그런 점에서 바이세시카의 학설은 범주실재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바이세시카에서 범주(範疇)로 번역되는 ‘padārtha’는 ‘말의 의미’ 혹은 ‘말의 의미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이세시카에서 범주는 ‘이름 붙일 수 있고, 언급할 수 있는 사물’, 즉 ‘언어에 대응하는 사물’을 의미한다.¹³⁾ 카나다는 『바이세시카 수트라』에서 이렇게 말한다.

실체, 속성, 운동, 보편, 특수, 내속이라는 [여섯] 범주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의 진실에 대한 지식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특수한 공덕을 낳는다. 『바이세시카 수트라』, 1.1.4¹⁴⁾

즉 여섯 범주들은 유사성과 차별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여섯 범주들은 범주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범주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사성과 차별성의 진실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12) 프라샤스타파다(Prasastapāda, 5-6세기경)에 의해 체계화된 바이세시카는 처음에는 여섯 범주만을 인정했으나, 쉬와디피야(Sivāditya, 12세기경)는 거기에 다시 비존재를 새로운 범주로 추가함으로써 7범주론이 되었다. 이지수, 「쉬와디피야(Sivaditya)의 7범주론(Saptapadarthi)」 『인도철학』 제4집 (서울: 인도철학회, 1994), p.25 참조.

13) Peeru Kannu, S, *The Critical study of Prasastapadabhasya* (Kanishka Pub. House, 1992), p.32.

14) dharmaviśeṣaprasūtād dravyaguṇakarmasāmānyaviśeṣasamavāyānārṇ padārthānārṇ sādhamyavaidhamyābhyārṇ tattvajñānārṇ niḥśreyasam || VS, 1.1.4 ||

부터 최고의 축복, 즉 해탈이라는 특수한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라샤스타파다는 『구의법종요』에서 여섯 범주의 유사성을 이렇게 말한다.

여섯 범주에는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이 있다. 『구의법종요』 11)¹⁵⁾

슈리다라 주석 11)¹⁶⁾ ‘존재성(astitva)’ 즉 ‘독자적 모습을 가지는 것’은 여섯 [범주]에 공통이다. 어떤 사물의 독자적인 모습(svarūpa), 그것이 바로 그 [사물]의 존재성이다. ‘언설가능성(abhidheyatva)’, 즉 명칭으로 말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실제의 독자적인 모습이고, 존재의 독자적인 모습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인식가능성(jñeyatva)’ 혹은 ‘언설가능성’이라고 말해진다.¹⁷⁾

즉 여섯 범주는 모두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이라는 세가지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거기서 존재성이란 그 사물의 독자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특정 상태에서는 ‘인식가능성’이라고 말해지고, 또 다른 상태에서는 ‘언설가능성’이라고 말해진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바이세시카의 범주론에서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은 호환 가능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¹⁸⁾

그런 경우 바이세시카의 범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인식 가능하고 언설 가능한 사물은 존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②인식 불가능하고 언설 불가능한 사물은 존재로 인정될 수 없다. ③그런 경우 여섯

15) *ṣaṅṅām api padārthānām astitvābhidheyatvajñeyatvāni* || PDS, p.16(1-2).

본 인용문의 번호는 PDS(tr) 및 本多恵, 『ヴァイシエ-シカ哲學體系』(東京: 國書刊行會, 1990)에 따른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의법종요』의 번역은 이 두 책을 주로 참조하였다.

16) ‘슈리다라 주석’이란 슈리다라(Śrīdhara, 9세기경)가 저술한 『니야야칸달리(Nyāyakandali)』를 말한다. 이 문헌은 프라샤스타파다가 저술한 『구의법종요』에 대한 주석서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DS는 프라샤스타파다의 『구의법종요』와 슈리다라의 『니야야칸달리』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17) *astitvaṁ svarūpakatvaṁ ṣaṅṅām api sādharma yasya vastuno yat svarūpaṁ tad eva tasyāstitvam | abhidheyatvam api abhidhānapratipādanayogyatvaṁ tac ca vastunaḥ svarūpaṁ eva bhāvasvarūpaṁ evāvasthābhedena jñeyatvam abhidheyatvaṁ cocyate* || PDS, p.16(5-8).

18) 이와 관련하여 이지수는 “인식은 실제의 조명(照明)이고, 언어는 인식의 외화(外化)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지수, 「와이세시카 학파의 7범주론」, 『인도철학』 vol. 4 (서울: 인도철학회, 1990), p.205.

범주들은 각기 다른 인식을 발생시키고, 각기 다른 명칭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상이한 존재들이다.

바이세시카의 범주론에서 첫번째 범주인 실체는 ①지(地, *prthivī*), ②수(水, *āpas*), ③화(火, *tejas*), ④풍(風, *vāyu*), ⑤공간(空間, *ākāśa*), ⑥시간(時間, *kāla*), ⑦방향(方向, *diś*), ⑧아트만(*ātman*), ⑨마나스(*manas*)의 아홉 종류이다. 이 아홉 종류의 실체들은 각기 물질과 정신, 그리고 그밖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예를 들면 지수화풍은 물질 현상, 아트만은 정신 현상, 마나스는 물질과 정신의 소통 현상, 공간과 방향은 물질의 운동, 시간은 정신과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세시카의 범주론에서 세번째 범주인 운동(運動, *karman*)은 ①위로 가기(*utkṣepaṇa*), ②아래로 가기(*avakṣepaṇa*), ③굽히기(*ākuñcana*), ④뺏치기(*prasāraṇa*), ⑤가기(*gamana*)의 다섯 종류이다.¹⁹⁾ 이 다섯 종류의 운동들은 실체의 움직임 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공간(*ākāśa*) 및 방향(*diś*)과 별도로 설정된 것이다. 그럴 경우 운동은 실체의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공간과 방향은 실체의 움직임에 대한 간접적인 조건이다. 카나다는 실체와 운동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실체의 특징은 운동과 속성의 소유자, [그리고 그 둘의] 내속인(內屬因)인 것이라고 [말해진다]. 『바이세시카 수트라』, 1.1.15)²⁰⁾

즉 실체는 ①운동의 소유자인 동시에 ②운동의 내속인이라는 것이다. 그가운데 ①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운동은 실체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운동은 실체의 무거움, 유동성, 의지적 노력, 결합 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²¹⁾ 그럴 경우 실체는 운동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운동은

19) VS, 1.1.7.

20) *kriyāgūṇavat samavāyikāraṇam iti dravyalakṣaṇam* || VS, 1.1.15 ||

21) WATANABE Masayoshi, *ibid.*, p.1066.

반드시 실체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체는 운동의 소유자(혹은 의지 처)라고 말해진다는 것이다.²²⁾

②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바이세시카는 인중무과론(因中無果論)에 따라 실체로부터 운동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둘을 상이한 실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실체는 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운동이 가능해지며, 그 둘은 어느 하나가 파괴되기 전에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바이세시카는 이와 같은 결합 관계를 내속(內屬)이라고 부른다.²³⁾ 이처럼 실체는 운동의 원인이고, 운동과 내속의 관계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운동의 내속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카나다는 다시 운동을 이렇게 설명한다.

운동의 특징은 하나의 실체만을 가지며, 속성을 갖지 않으며, [실체의] 결합과 분리에 대한 독립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이세시카 수트라』, 1.1.17)²⁴⁾

슈리다라 주석 138) “[운동은] 하나의 실체만 가진다.”[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즉] 동일한 시간에 하나의 실체에 하나의 운동만이 존재하고, 하나의 운동은 하나의 실체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운동은] 하나의 실체를 가진다.”라고 말한다.

만약 하나의 실체에 동일한 시간에 서로 모순하는 두개의 운동이 내속한다면, 그때 양자는 서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방향에 결합이나 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결합이나 분리의 독립적 원인이 라고 하는 운동의 정의가 손상될 것이다.

22) 설일체유부에서도 실체(實體, dravya)의 존재를 승인하지만, 설일체유부의 실체는 바이세시카의 실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바이세시카는 실체를 ‘운동과 속성의 소유자(=의지처)’라고 정의하지만, 설일체유부는 실체를 ‘각종으로 분석해도 그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는 단일한 사물’이라고 정의하며, 설일체유부에서 그것은 결국 ‘각종으로 분석해도 그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는 단일한 속성인 자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수영, 앞의 책 『중관사상의 이해』, pp.48-59 참조.

용수는 『중송』 제15장 제2송에서 그와 같은 설일체유부의 자성을 ‘만들어지지 않은 것,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그는 바이세시카와 설일체유부의 실체를 모두 논파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23) 라다크리슈난, 이거롱 율김, 앞의 책, pp.321-322 참조.

24) ekadravyam agūṇaṁ saṁyogavibhāgeṣvanapekṣaṁ kāraṇam iti karmalakṣaṇam || VS, 1.1.17 ||

또 만약 모순하지 않는 두개의 운동이 만난다면, 그때에는 그 하나의 [운동]만으로 그 장소에 있는 실체의 결합이나 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개의 [운동]을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운동은 여러 개의 [실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실체]가 움직일 때, 그 운동에 의해서 다른 [실체]가 움직이는 것은 승인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⁵⁾

즉 동일 시간에 하나의 실체에 서로 모순하는 두개의 운동이 결합한다면, 그때 그 두개의 운동은 서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방향에 대한 실체의 결합이나 분리가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체의 결합이나 분리에 대한 독립적 원인’이라고 하는 운동의 특징이 성립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의 운동으로 그 장소에 있는 실체가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에 두개의 운동을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어떤 실체가 움직일 때 그 운동에 의해서 다른 실체가 움직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시간에 하나의 실체에는 하나의 운동만이 존재하며, 그와 유사하게 하나의 운동은 여러 실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이세시카에 의하면 다섯 종류의 운동은 다시 ‘자아에 지배되는 운동’과 ‘자아에 지배되지 않는 운동’으로 구분된다.²⁶⁾ 그 가운데 자아에 지배되는 운동은 다시 ①관념을 가진 운동, ②손에서 놓아진 여러 사물의 운동, ③기계에서 놓아진 여러 사물의 운동으로 구분된다.²⁷⁾ 프라샤스타파다는 그 가운데 ‘① 관념을 가지는 운동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한다.

25) ekadravyavatvam ekadā ekasmin dravye ekam eva karma vartate ekam karma ekatraiva dravye vartate ity ekadravyavatvam | yady ekasmin dravye yugapad viruddhobhayakarmasamavāyāḥ syāt tadā tayoh paraspara pratibandhād digviśeśasamyogavibhāganūtpatto samyogavibhāgayor anapeksākāraṇaṁ karmeti lakṣaṇahānīḥ syāt | athāvīruddhakarmadvayasamāvesaḥ tadaikasmād eṣa taddeśadravyasamyogavibhāgayor upapatteḥ dvitīyakalpanāvaiyarthyam | evam ekaṁ karma nānekatra vartate ekasya calane tasmāt karmano 'nyasya calanānupalambhāt | PDS, p.290(14-20).

26) 本多惠, 앞의 책, p.488 및 p.495 참조.

27) 앞의 책, p.488, p.491, p.492 참조.

관념을 가지는 운동의 법칙(vidhi)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인가? 제사, 공부, 보시, 경작 등을 행하려고 바랄 때, 손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려고 욕구하면, 그 때 손의 소유자인 자아가 있는 곳에 의지적 노력이 발생한다. 이 의지적 노력과 무게를 예상한 자아와 손의 결합으로부터 손에 운동이 발생한다. 손과 마찬가지로 발 등 모든 신체의 부분이나 신체에도 운동이 발생한다. 『구의법중요』, 145)²⁸⁾

즉 관념을 가지는 운동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손, 발, 신체의 최종적 소유자는 자아(自我, ātman)이고, 손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는 자아의 욕구로부터 의지적 노력이 발생한다. 의지적 노력을 일으킨 자아는 손의 무게를 예상하면서 손과 결합한다. 그와 같은 결합에 의해서 손에 운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발이나 그 밖의 신체적 운동도 모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제 바이세시카의 범주론 가운데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은 호환 가능한 용어이다. (2)여섯 범주들은 각기 다른 인식을 발생시키고, 다른 이름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상이한 존재들이다. (3)운동은 실체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운동은 실체의 무거움, 유동성, 의지적 노력, 결합 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4)실체는 운동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운동은 반드시 실체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5)실체에는 본래 운동이 없으며, 운동과의 결합에 의해서 운동이 가능해진다. (6)실체와 운동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파괴되기 전에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7)동일한 시간에 하나의 실체에는 하나의 운동만이 존재하며, 그와 유사하게 하나의 운동은 여러 실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8)사람의 운동 가운데 의식적 운동은 ‘관념을 가지는 운동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된다.

28) sat pratyayakarmavidhiḥ | katham cikīrṣiteṣu yajñādhyayanadānakṛṣyādiṣu yadā hastam utkṣeptum icchaty apakṣeptum vā tadā hastavaty ātmapradeṣe prayatnaḥ samjāyate tam prayatnam gurutvā copekṣamāṇād ātmahastasamyogād dhaste karma bhavati hastavat sarvaśarīrāvayaveṣu pādādiṣu śarīre ceti | PDS, p.297(19-24).

III. 「관거래품」의 바이세시가 운동설 귀류 논파

1. 하나의 운동 현상 속에 두개의 가는 행위

용수는 「관거래품」 제1송에서 “우선 ‘이미 간 것’은 가지 않는다. [또한] ‘아직 가지 않은 것’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가지 않는다.”²⁹⁾라고 말한다.

이 계송에서 ‘이미 간 것’은 과거의 사물,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미래의 사물,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사물을 가리킨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물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가는 행위는 사물에 의존해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계송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가는 행위의 존재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수는 「관거래품」 제2송에서 자신이 행한 운동 논파에 대한 실재론자의 반박을 소개한다.

동작(ceṣṭā)이 있는 곳에 가는 [운동]이 있다. 그 [동작]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있고,
‘이미 간 것’이나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가는 [운동]이 있다. 『중송』, 2-2)³⁰⁾

월칭석 2-2) 여기서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들어 올리고 내려 놓는 것이다. [지금] 걷고 있는 ‘가는 자’의 동작이 있는 장소, 거기에 가는 [운동]이 있다. 그 동작은 ‘이미 간 것’에도 존재하지 않고,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가고 있는 것’에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는 가는 [운동]이 있다.³¹⁾

29) gataṁ na gamyate tāvad agataṁ naiva gamyate |
gatāgatavinirmuktaṁ gamyamānaṁ na gamyate || MMK, 2-1 ||

30) ceṣṭā yatra gatis tatra gamyamāne ca sā yataḥ |
na gate nāgate ceṣṭā gamyamāne gatis tataḥ || MMK, 2-2 ||

31) tatra ceṣṭā caraṇotkṣepaparikṣepalakṣaṇā | yato vrajato gantur yatra deṣe ceṣṭā gatis tatraiva deṣe | sā ca

즉 우리는 지금 눈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들어 올리고 내려 놓는 동작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본다. 그것은 지금 가고 있는 자의 가는 동작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자의 가는 동작이 있는 곳에 가는 운동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가는 운동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관개래품」 제2송에서 발견되는 실재론자는 용수의 논파에 대하여 가는 동작의 존재로부터 ‘지금 가고 있는 자’에게 가는 운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재론자의 운동설은 본 논문의 제II장에서 정리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 가운데 (8)관념을 가지는 운동의 법칙과 잘 부합한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사람의 운동을 “손, 발, 신체의 최종적 소유자는 자아(自我, ātman)이고, 손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는 자아의 욕구로부터 의지적 노력이 발생한다. 이 의지적 노력과 무게를 예상한 자아와 손의 결합으로부터 손에 운동이 발생한다. 손과 마찬가지로 발 등 모든 신체의 부분이나 신체에도 운동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수는 그와 같은 실재론자의 반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의 감이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두 개의 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송』, 2-3)³²⁾

월칭석 2-3)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감을 떠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감과 분리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럴 경우 하나의 가는 행위에 의존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고, 두 번째의 [가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을 떠나서 ‘간다’라고 하는 언설은 승인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언설의 온전한 의미는

ceṣṭā na gate 'dhvani sarībhavati nāpy agate, kim tu gamyamāna eva | tataś ca gamyamāne gatih | PP, p.94.

32) gamyamānasya gamanaṁ katharī nāmopapatsyate | gamyamāne dvigamaṇaṁ yadā naivaupapadyate || MMK, 2-3 ||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계송의] 의미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의 [가는] 행위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³³⁾

즉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간다’라고 하는 두개의 언설은 모두 가는 행위와의 결합에 의해서 성립한다. 왜냐하면 가는 행위와 분리되어 있을 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든가 ‘간다’라고 하는 언설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언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가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의 운동 현상 속에 두개의 가는 행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관거래품」 제3송에서 언급하는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간다’를 각각 바이세시카의 여섯 범주 가운데 실체와 운동으로 대체해 보면, 이 계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바이세시카 운동설 논파가 된다.

① 제II장에서 정리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 (1)은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을 호환 가능한 용어’라고 말한다. 그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간다’라고 하는 두개의 언설은 상이한 존재로서 확정된다.³⁴⁾ 그럴 경우 그 두 사물은 각각 바이세시카의 여섯 범주 가운데 실체와 운동에 해당한다.

②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 (5)는 “실체에는 본래 운동이 없으며, 운동과의 결합에 의해서 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33) *gamyamānam iti gamyata ity arthaḥ | vigatagamanam̐ vigamanam̐ | ekasyā gamikriyāyā gamyamānam ity atropayuktatvād dvitīyāyā abhāvāc ca, gamyata ity ayaṁ vyapadeśo vinā gamanena yadā naivopapadyate, tadā gamyamānam̐ gamyata ity paripūrṇo vākyārtho nāstīty abhiprāyah | gamyamānam ity eṭāvan mātṛam eva sambhavati dvitīyakriyābhāvāt, na tu gamyata itī || 3 || PP, pp.94-95.*

밑줄친 부분은 푸생의 교정본에는 ‘dvigatam̐ gamanam̐ dvigamanam̐’으로 되어 있지만,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De Jong의 교정에 따라 수정하였다. 김정근 역주, 『쁘라산나빠다』 제1권 (서울: 푸른가람, 2011), p.189, 각주 1)을 참조.

34) 왜냐하면 바이세시카는 제II장에서 정리한 운동설 항목 (1)의 규정에 따라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언설이 존재하면, 그와 같은 인식이나 언설의 대상이 되는 사물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것'은 '가는 행위'와의 결합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된다.

③가는 행위가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결합하면, '간다'라는 운동에는 가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 현상 속에 두개의 가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간다'라는 언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④그렇게 되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언설의 온전한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운동 현상의 존재도 부정된다. 왜냐하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 (1)은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을 호환 가능한 용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용수가 「관거래품」 제3송에서 행했던 바이세시카 운동설에 대한 귀류 논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용수는 거기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현실의 운동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의 운동 현상 속에 두개의 가는 행위'라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하였던 것이다.

2.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가는 행위의 비존재

「관거래품」 제4송에 대한 월칭의 앞주석에는 위와 같은 용수의 논파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간다'라는 언설에만 가는 행위와의 결합이 기대된다."³⁵⁾라고 말하는 실재론자의 반박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실재론자의 재반박에 대하여 용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의 감을 [주장하는 자], 그는 [오류에] 귀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운동]도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송』, 2-4)³⁶⁾

35) atha gamyata ity atraiva gamikriyāsambandha iṣyate, PP, p.95.

월칭석2-4) ‘지금 가고 있는 것’의 감을 주장하는 자, 즉 가는 행위가 없는 허구적 존재인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가는 행위가 부착된 [감의] 존재를 기대하는 자, 그의 주장은 가는 행위도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오류로] 귀착되어, 가는 [운동]을 떠난 감[의 주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³⁷⁾

즉 실재론자가 ‘하나의 운동 현상에 두개의 가는 행위’라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간다’라는 언설에만 가는 행위가 결합한다고 말하면, ‘지금 가고 있는 것’에는 가는 운동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가는 행위와 결합하지 않은 것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럴 경우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는 언설은 성립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의 가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언설에서 ‘간다’라고 하는 언설에만 가는 행위가 결합한다고 하는 주장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제 「관거래품」 제4송에서 언급하는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간다’를 각각 바이세시카의 여섯 범주 가운데 실체와 운동으로 대체해 보면, 이 계송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바이세시카 운동설 논파가 된다.

① 바이세시카의 실재론자가 ‘하나의 운동 현상에 두개의 가는 행위’라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언설에서 ‘간다’라고 하는 언설에만 가는 행위가 결합한다고 주장하면, 이번에는 가는 행위와 결합하지 않은 사물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② 그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는 언설이 성립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허구적인 비존재가 된다. 제II장에서 정리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 (1)

36) gamyamānasya gamanān yasya tasya prasajyate |
rte gater gamyamānān gamyamānān hi gamyate || MMK, 2-4 ||

37) yasya vādino gamyamānasya gamanam iti pakṣaḥ, gamyamāne sarjñābhūte gamikriyāśūnye yo gamikriyām ādheyabhūtām icchati, tasya pakṣa rte gater gamyamānam iti prasajyate, gatirahitaṁ gamanān syāt, yasmād asya gamyamānān hi gamyate | PP, p.95.

은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을 호환 가능한 용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가는 행위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4)는 “운동은 반드시 실체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③그렇게 되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는 언설과 ‘간다’라는 언설은 모두 성립할 수 없게 되고,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운동 현상의 존재도 부정된다. 왜냐하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1)은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을 호환 가능한 용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용수가 「관거래품」 제4송에서 행했던 바이세시카 운동설에 대한 귀류 논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용수는 거기서 바이세시카의 실재론자가 ‘하나의 운동 현상에 두개의 가는 행위’라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언설에서 ‘간다’라는 언설에만 가는 행위가 있다고 말하면, 이번에는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가는 행위’가 모두 비존재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 하였던 것이다.

3. 운동설 항목들의 양립 불가능성

용수는 「관거래품」 제19송과 제20송에서 가는 자와 가는 행위의 동일성 및 상이성의 불성립에 근거해서 가는 행위의 존재를 논파한다. 그는 먼저 가는 자와 가는 행위의 동일성에서 발견되는 불합리를 이렇게 말한다.

만약 감이 곧 가는 자라면,
행위자와 행위가 하나라고 하는 [오류]가 뒤따르게 된다. 『중송』, 2-19)³⁸⁾

월칭석 2-19) 만일 가는 행위(gamikriyā)가 가는 자와 분리되지 않아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행위자와 행위(kriyā)의 동일성이 존재하게

38) yad eva gamanaṁ gantā sa eva hi bhaved yadi |
ekībhāvaḥ prasajyeta kartuḥ karmaṇa eva ca || MMK, 2-19 ||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이고, 이것은 행위자다.”라고 하는 구분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끼질 하는 행위와 나뭇꾼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이 곧 가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³⁹⁾

즉 만약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행위자와 행위가 동일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행위자와 행위의 구분이 성립하지 않게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둘의 구분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용수는 가는 자와 가는 행위의 상이성에서 발견되는 불합리를 이렇게 말한다.

반대로 가는 자와 가는 [운동]이 서로 다르다고 분별한다면,
가는 자가 없어도 감이 있고, 감이 없어도 가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중송』, 2-20)⁴⁰⁾

월칭석 2-20) 만약 ‘가는 자’와 감이라는 양자의 상이성이 존재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감에 의존하지 않는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가는 자’에 의존하지 않는 감이 포착될 것이다. 그것은 옷감이 항아리로부터 분리되어서 성립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는 자’로부터 분리해서 성립해 있는 감은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는 자와 가는 [운동]은 상이하다.”는 말도 타당하지 않음이 논증되었다.⁴¹⁾

39) yeyarñ gamikriyā, sā yadi gantur avyatiriktā nānyā syāt, tadā kartuḥ kriyāyās caikatvarñ syāt | tatas ceyarñ kriyāyārñ karteti viśeṣo na syāt | na ca chidikriyāyāḥ chettuś caikatvam | ato yad eva gamanarñ sa eva ganteti na yujyate || 19 || PP, p.104.

40) anya eva punar gantā gater yadi vikalpyate | gamanarñ syād ṛte gantur gantā syād gamanād ṛte || MMK, 2-20 ||

41) yadi hi gantṛgamanayor anyatvarñ syāt, tadā gamananirapekṣo gantā syāt, gantṛnirapekṣarñ ca gamanarñ grhyeta prthaksiddharñ ghaṭād iva paṭaḥ | na ca gantuḥ prthaksiddharñ gamanarñ grhyata iti | anya eva punar gantā gater iti na yujyate iti prasādhitam etat || 20 || PP, p.105.

즉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가 서로 상이한 것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가는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가는 자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가는 자에 의존하지 않는 가는 행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이한 사물인 옷감과 향아리가 서로 분리되어서 성립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는 자와 가는 행위는 분리된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는 자와 가는 행위, 즉 가는 운동이 상이하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만약 가는 자와 가는 행위가 진실로 존재한다면, 그 두 사물은 동일하거나 상이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며, 그 밖에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동일성과 상이성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는 자와 가는 행위는 모두 진실한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거래품」 제19송은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 대한 논파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은 실체와 운동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거래품」 제20송에서 언급하는 ‘가는 자’와 ‘가는 행위’를 각각 바이세시카의 여섯 범주 가운데 실체와 운동으로 대체해 보면, 이 계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바이세시카 운동설 논파가 된다.

①제II장에서 정리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1)은 ‘존재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은 호환 가능한 용어’라고 말하며,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2)는 ‘여섯 범주들은 각기 다른 인식을 발생시키고, 다른 이름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상이한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서 실체와 운동은 상이한 존재라고 확정된다.

②만약 운동과 실체가 상이한 존재라면, 그 둘은 분리된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하겠지만,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 따르면 실체와 운동은 분리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4)는 “운동은 반드시 실체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6)은 “실체와 운동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파괴되기 전에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③만약 현실에서 실체와 운동이 분리된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존재

성, 언설가능성, 인식가능성은 호환 가능한 용어'라고 말하는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1)에 따라 그것들의 상이성도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섯 범주들은 각기 다른 인식을 발생시키고, 다른 이름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상이한 존재'라고 하는 운동설 항목(2)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용수가 「관거래품」 제20송에서 행했던 바이세시카 운동설에 대한 귀류 논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용수는 거기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 따라 실체와 운동의 상이성을 인정하게 되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1), (2), (4), (6)의 양립 불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를 드러내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하였던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행했던 바이세시카 운동설에 대한 귀류 논파(歸謬論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논자는 그런 목적에 따라 우선 제Ⅱ장에서 바이세시카의 범주론 가운데 「관거래품」의 운동 논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런 후 논자는 제Ⅲ장에서 「관거래품」에서 언급하는 ①지금 가고 있는 것, ②가는 자, ③가는 행위 가운데 ①과 ②를 바이세시카의 여섯 범주 가운데 실체, ③을 운동으로 대체하면서, 제Ⅱ장에서 정리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들을 「관거래품」 제3, 4, 19, 20송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논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용수는 「관거래품」 제3송에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현실의 운동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의 운동 현상 속에 두개의 가는 행위’라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하였다.

둘째, 용수는 「관거래품」 제4송에서 바이세시카의 실재론자가 ‘하나의 운동 현상에 두개의 가는 행위’라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언설에서 ‘간다’라는 언설에만 가는 행위가 있다고 말하면,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가는 행위’가 모두 비존재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하였다.

셋째, 용수는 「관거래품」 제20송에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 따라 실체와 운동의 상이성을 인정하게 되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 (1), (2), (4), (6)이 양립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행했던 바이세시카 운동설에 대한 귀류 논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용수는 「관거래품」 제3, 4, 20송에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에 따라 현실의 운동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①하나의 운동 현상에 두 개의 ‘가는 행위’가 있게 되는 불합리, ②‘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가는 행위’가 모두 비존재가 되는 불합리, ③바이세시카의 운동설 항목들이 양립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논파하였던 것이다.

용수가 「관거래품」에서 바이세시카의 운동설을 귀류 논파했다고 해도, 그가 우리의 현실에서 발견되는 운동의 비존재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용수는 현실의 운동을 연기(緣起)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용수가 운동의 존재를 승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용수는 일체법이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중도 개념 속에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양 극단의 부정인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MMK *Mūlamadhyamakakārikā* included in PP.
- PDS *The Prasastapada Bhashya: with commentary Nyayakandali of Sridhara, Dvivedin, Vindhyesvari Prasad ed., Sri Satguru Pub,1984.*
- PDS(tr) *Padarthadharmasangraha of Prasastapada: with the Nyayakandali of Sridhara, Ganganatha Jha. trans., Chaukhambha Orientalia. 1982.*
- PP *Mūlamadhyamakakārikās de Nāgārjuna avec la Prasannapadā Commentaire de Candrakīrti, publié par Louis de la Vallée Poussin, St. Pétersburg 1903-1913, Bibliotheca buddhica no. 4.*
- VS *The Vaisesika aphorisms of Kanada: with comments from the Upaskara of Sankara Misra and the Vivritti of Jaya-Narayana Tarkapanchanana, Archibald Edward Gough trans., Dev Publishers & Distributors, 2014.*
- YAMAGUCHI, Susumu (山口益) tr. 1947, 『淨名句論と名づくる中論釋』 [*Prasannapāda nama Madhyamakavṛtti*] vol.1, Tokyo: 弘文堂書房 (Shimizukoubundo)
- HONDA, Megumu (本多恵). 1990, 『ヴァイシェシカ哲學體系』 [**The Philosophy System of Vaiśeṣika*], Tokyo: 國書刊行會 (Kokushyokankoukai).
- KIM, Jungkun (김정근) tr. 2011, 『뵈라산나빠다』 [*Prasannapāda*] 4vols., Seoul: 푸른가람 (Purungaram).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KATSURA, Syoryu & Koshima, Kiyotaka (桂紹隆·五島清隆) 2016, 『龍樹『根本中頌』を讀む』 [**A Reading of Nāgārjuna's Mūlamadhyamaka-kārikā*], Tokyo: 春秋社 (Shyunjyusha).
- LEE, Jisoo (이지수). 1990, 「와이세시가 학파의 7범주론」 [**“The Seven padārtha Theory of Vaiśeṣika”*], 『인도철학』 [*The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1, pp.201-241.

- _____. 1994, 「쉬와디띠야의 7범주론」 [*“The Saptapadarthi Theory of Śivāditya”], 『인도철학』 [*The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4, pp.25-65.
- _____. 2000, 「『중송』 「관거래품」은 운동 否定의 논리인가?」 [“Is the Gatāgata-Parīkṣā of the Mādhyamaka-kārika a dialectic to negate motion?”],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26, pp.49-82.
- NAM, Sooyoung (남수영). 2015, 『중관사상의 이해』 [**The Understanding of Madhyamaka Thought*], Seoul: 여래 (Yoerae).
- _____. 2016, 「용수의 중관사상에서 중도 개념 재검토」 [“A Re-examination on the Middle-Way Conception in Nagarjuna’s Madhyamaka Thought”], 『보조사상』 [*Journal of Bojo Thought*] vol. 46, pp.135-168.
- PEERU Kannu, S. 1992, *The Critical study of Prasastapadabhasya*, Kanishka Pub. House.
- S. Radhakrishnan wrote, Lee, Geolyong tr. (라다크리슈난 지음, 이거룡 옮김). 1999, 『인도철학사』 [*Indian philosophy*] vol.3, Seoul: 한길사 (Hangilsa).
- TACHIKAWA, Musashi (立川武藏). 1981, 「空思想研究のための諸水平(承前)」 [*“Some Horizons for Studying of Śūnyatā Thought”], 『東洋學術研究』 [*The Journal of Oriental Studies*] Vol. 20 No.2 (no.101), pp.120-136.
- WATANABE, Masayoshi. 2019, “Action (karman) in Vaiśeṣika Philosophy: A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Space (dis)”, 『印度學佛敎學研究』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67 No.3 (148), pp.1065-1069.
- WHITNEY, William Dwight. 1964, *Sanskrit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Nagarjuna's Confutation by Logic of Reduction to Absurdity on the Movement Theory of Vaiśeṣika

Nam, Sooyo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tudy, Nungj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specifically on the contents of Nagarjuna's confutation by logic of reduction to absurdity on the movement theory of Vaiśeṣika, which are included in the Chapter of "Reviewing on Going and Coming", the second chapter of *Mūlamadhyamaka-kārikā*.

Following such purpose, this writer arranged the movement theory of Vaiśeṣika into eight items, which is thought to be related to the confutation from the Chapter of "Reviewing on Going and Coming". Then this writer has applied the movement theory of Vaiśeṣika to the third, fourth, nineteenth, and twentieth verses from the Chapter of "Reviewing on Going and Coming", while replacing 'that which is going now' and 'the going one' with 'substance', the 'going action' with 'action'.

As a result, this writer got to know the specific contents of Nagarjuna's confutation by logic of reduction to absurdity on the movement theory of Vaiśeṣika, which Nāgārjuna used in the Chapter of "Reviewing on Going and Coming". In short, Nāgārjuna confuted by logic of reduction to absurdity the movement theory of Vaiśeṣika in the third, fourth, and twentieth verses of the Chapter of "Reviewing on Going and Coming", by uncovering the arising of absurdities, when explaining movement phenomenon in reality by the theory of Vaiśeṣika: ① absurdity of two going actions for one movement phenomenon, ② absurdity of non-existence of both that 'which is going now' and 'going action', ③ absurdity of incompatibility

among items constituting the movement theory of Vaiśeṣika

Keywords

Nagarjuna, Vaiesika, movement theory, confutation by logic of reduction to absurdity,
Mulamadhyamaka-karika, Chapter of “Reviewing on Going and Coming

2020년 05월 13일 투고

2020년 09월 07일 심사완료

2020년 09월 18일 게재확정

